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①

이제 텅 빈 교실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다



뽀디봉 초등학교 교사들이 피난처로 제공된 사찰 경내에서 여러 지역에서 피난 온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쟁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이번 무력 충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7일 새벽, 그동안 국경을 따라 새어 나오던 긴장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터져 나온 포성은 마을 사람들의 시간을 단숨에 멈춰 세웠습니다. 뽀디봉 마을 사람들은 경작지와 집을 내버려둔 채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경운기와 오토바이에 이불과 화로 같은 최소한의 살림살이,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몸이 약한 노인들을 태운 채 목적지도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이 뽀디봉 마을은 재가불자 NGO인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 2008년부터 수레꾼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공예학교를 차례로 세우며 16년 넘게 함께해 온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전쟁을 피해 비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 24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했으나 당시에는 닷새 만에 휴전이 이뤄져서 비교적 빠르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쟁이 20일간이나 이어졌고, 태국의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이 약 800㎞에 이르는 긴 전선을 따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기다리던 휴전은 지난달 27일에야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총성이 멎었다고 해서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뽀디봉 학교가 있는 이 지역은 여전히 '전쟁 위험 구역'으로 설정돼 귀환은 조심스럽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재개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현재 마을로 돌아온 주민은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다고 전해 왔습니다. 먼저 돌아온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학교 마당과 교실을 쓸고 닦으면서 텅 빈 교실에 앉아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마음속으로 불러 본다고 합니다.

뽀디봉 마을은 전쟁을 모르고 살아왔던 마을입니다. 마실 물도, 먹을 식량도, 그리고 오랜 시간 전기조차 없던 황무지 땅이었던 곳에서 수레꾼이 물을 파고 나무를 심으며 전기가 들어오는 날까지 힘써 일구어 왔던 땅이었습니다. 그런 이곳에 마침내 물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온 후, 조금이나마 살 만한 곳이 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 학교는 문을 닫아야 했고, 이제는 피난 갔던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토록 전쟁은 큰 재앙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전쟁이라는 변수는 우리 감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만, 인생이 본래 예측 불가능한 하나의 '드라마'라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역설적으로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우리는 16년 전부터 지금까지 뽀디봉 마을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새롭게 세울 것을 다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머지않아 돌아올 터이지만,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생겼을지라도 부디 무너지지 않았기를 바라며,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세워진 수레꾼의 뽀디봉 학교 이야기, 그 과거와 현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① 다시 묻는 대학생 전법

권유하면 따라오지 않는다

대학에서의 전법이 예전처럼 '권유하면 따라오는' 방식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동아리 '가람수호'를 지도하며 먼저 배웠습니다. 초기에 정기 법회를 성실히 이어 갔지만 참석자는 늘 비슷했고, 바깥으로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학생들이 '부담 없이 들어올 문'은 없었던 셈입니다.

전환점은 작은 실패에서 왔습니다. 홍보 문구 하나를 두고도 "종교 권유로 보일까 걱정된다"는 학생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전법이 내용 이전에 '접근 방식'의 문제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전법을 권유와 설명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경험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덕법회에서는 '진격의 거인', '귀멸의 칼날'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를 함께 보고, 책임·연대·희생을 불교 윤리의 언어로 다시 묻는 대화를 열었습니다. "법회는 처음인데 대화는 참여할 수 있었다"는 한 학생의 말은 제게 큰 힌트가 됐습니다. 불교동아리지도 교수님이 주도한 〈반야심경〉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경문을 풀이하게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해석이 '자기 말'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불교가 교리의 전달을 넘어 삶의 언어로 건너오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다만 준비가 부족하면 성찰이 얕아질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권유·설명 대신 학생 주도 이끌고
제도적 신뢰·공동체 관계 함께하면
전법은 강요 아닌 선택으로 작동돼

운영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획이 일부 임원에게 쏠리면 금세 지치고, 답사·행사에는 안전과 예산, 대외 협력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역할·안전·예산을 사전에 문서로 합의하고, 행사가 끝나면 회고를 기록으로 남기게 했습니다. 단기 성과는 느려도 학생 주도의 지속 가능성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이 과정의 토대에는 학교법인과 건학위원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전법과 인재 양성의 도량으로 세우고자 했던 해봉당 자승 스님의 원력, 그리고 그 뜻을 학교 운영 속에서 잇고 있는 이사장 돈관 스님의 원력은 현장에 신뢰의 기반이 됐습니다.

동국대 캠퍼스에서의 경험은 대학생 전법이 개인의 열정이나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전법이 오늘의 대학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신뢰와 공동체적 관계, 그리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실천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134회를 넘어 이어진 지역 미래육성 장학의 후원 사찰 방문과 감사 교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 불자들은 보시와 회향, 관계의 의미를 몸으로 배우며, 차담과 현장 대화를 통해 포교가 일방적 전달이 아닌 공동체적 실천임을 체득했습니다.

캠퍼스 포교 현장에서 얻은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포교는 '권유'가 아니라 학생들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 둔 경험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경험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 주도와 운영 매뉴얼을 갖춰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돼야 합니다.

개인의 부단한 노력만으로는 캠퍼스 전법이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학교법인과 건학위원회의 제도적 뒷받침, 불교계의 신뢰와 후원, 그리고 학생들의 자발적 실천이 맞물릴 때, 전법은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작동하는 길을 갖게 됩니다.



정완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 조교수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① 연재를 시작하며

저는 사진 찍는 할머니입니다.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부터 줄곧 사진만 찍어 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살기 위해 '거리 두기'가 강고하게 실천될 때, 산중 사찰만큼은 자유로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진가로서 오래전부터 매혹당한 사찰의 '꽃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불교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꽃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주문을 비롯해 사찰 문은 죄다 '들어오라는 문인지, 나가라는 문인지'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한 채 꽤 오래 헤맸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한 것은 '문'이 아닌, '나'의 문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문'을 찾는 데 스마트폰은 훌륭한 도구가 돼 주었습니다. 육체와 가장 밀착된, 육체의 확장으로서 스마트폰에 나를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맨몸'으로 다가가 스마트폰으로 만난 꽃문은 저의 내면 풍경입니다. 인간에 다가온 모든 풍경은 몸과 마음이 인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소사 꽃살문.

스마트폰의 신체성은 풍경에 다가가는 데 걸맞은 도구였습니다. 꽃문을 찍으면서 화면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저녁 예불 범종 소리를 담고자 했습니다.

저의 이 도전이 우리나라 사찰 꽃문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느끼는 데,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작으나마 아이디어의 촉매로 소용된다면 더 바랄 바 없겠습니다.

손영자 작가

늘 곁에, 새롭게
BTN 불교TV
신규프로그램
2026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보만스님 남성불교심리학 사내진미(眞美)
보만스님이 전하는 남성들을 위한 불교심리학
방송시간 (월) 12:00, 22:30



광우스님의 토크쇼 가피
광우스님과 불자들의 공감가득 신행이야기
방송시간 (화) 07:30, 19:30



수행의 맛 절밥한끼
법송스님과 김형석 셰프의 전국 방방곡곡 건강한 밥상 이야기
방송시간 (수) 09:30, 21:30 / (목) 14:30



꽃보다 출가 시즌2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자들의 유쾌한 출가이야기
방송시간 (화) 09:30, 21:30 / (수) 16:30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열전
울림 라디오 인기DJ 나상도, 남궁진의 열정과 공감의 토크쇼
방송시간 (월) 13:00, 23:15

스마트하게 BTN불교TV를 시청하는 방법
TV를 통해서 시청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케이블TV는 지역별 채널번호가 상이하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
www.btn.co.kr 홈페이지 접속 후 '온에어' 메뉴 클릭!
앱을 통해서 시청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BTN불교TV' 검색 후 무료 다운로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유튜브 검색창에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검색 후 구독과 알림설정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